



뉴욕 소더비 미술 학교의 단기 전문 강좌 과정

소더비 경매 회사 부설 미술 학교인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는 여름 학교 과정을 통해 '뉴욕'이라는 세계 미술 수도를 교실 삼아 전문가와 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강좌를 진행한다.

Art and the City

Sotheby's Summer Institute takes advantage of its location in one of the world's great art capitals to turn all of New York into a classroom, helping students gain a foothold in the art world.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 회사 입구
The entrance to Sotheby's headquarters



위해 덴마크에서 뉴욕까지 긴 여행을 감수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큐레이션과 큐레이터는 덴마크에서 한창 뜨는 예술 분야이자 직종입니다. 이 분야의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이곳 강사진은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뉴욕은 당대 예술의 수도잖아요. 덴마크에 돌아가서 이력서에 이 학교의 수료 이력을 추가하면 저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소더비’라는 이름은 바로 그 문을 열어 줄 열쇠와도 같죠.”

현재 소더비 여름 학교는 미술사, 액티비즘, 미술 실무, 미술품 범죄 등 8개 분야 강좌를 운영하며, 분야마다 좀 더 세분화한 과정이 개설돼 있다. 소더비 여름 학교 강좌의 공통적 특징은 뉴욕 미술계에 정통한 강사와 전문가는 물론 미술관 관계자에게 직접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보스톤 칼리지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엘런 왕은 ‘큐레이팅 핵심’ 강좌에 등록했다. “올가을 런던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의 여름 학교에서는 강좌를 통해 박물관, 상업 화랑,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미술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 밖에서 미래의 진로를 미리 경험하고 고민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왕의 말이다.

and the evolution of interactive art.

Casper Berthelsen explains why he came all the way from Denmark for the four-week course: “Curation and curators are a big subject back home. I needed more experience with this, and to learn more about the subject ... The teachers are incredibly knowledgeable, and the city is alive with so much art. I know when I get back to Denmark I’ll have more possibilities open to me, a better CV. The Sotheby’s name opens doors.”

Currently, the SSI offers classes in eight different fields of study, including art history, activism and art crime. A unifying trait is that learning comes firsthand, from galleries, instructors and practitioners who have their fingers on the pulse of the New York art scene.

Ellen Wang, a Curating Essentials student who recently graduated with an art history degree, says, “This program connects us with art professionals from a variety of backgrounds — museums, commercial galleries, nonprofit organizations, etc. It’s a great way of familiarizing myself with career options outside academia.”

뉴욕 51번가와 렉싱턴가가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면 다채로운 색감의 벽돌과 대리석, 테라 코타 마감재, 그리고 다양한 자연물을 형상화한 조각상이 어우러진 제너럴 일렉트릭 빌딩이 보인다. 과거 대기업 건물이었던 것치고는 지나치게 예술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러나 소더비 경매 회사 부설 미술 학교인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가 입주하기에는 더없이 완벽한 곳이다.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가 1969년부터 정규 미술 교육을 진행해 온 데 비해, 단기 전문 강좌인 여름 학교는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야 시작했다. “뉴욕에 위치한 덕분에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이 모입니다. 정규 학위가 필요 없더라도 미술 산업과 미술계에 관한 배움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창설했죠.” 국제 입학처장 수전 로스의 설명이다.

여름 학교의 과정 중 하나는 ‘큐레이팅 핵심’ 강좌로, 큐레이터의 역할에 관한 깊은 이해와 예술가들과 관계 형성법, 전시회 제안서 작성법, 설치 미술 기획 및 디자인 방법 등을 배운다. 또한 아트 페어 증가와 인터랙티브 미술의 발전 등이 가져온 큐레이팅의 최신 흐름 역시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다.

카스페르 베르텔센은 4주 과정의 이 단기 전문 강좌를 듣기

New York’s General Electric Building — a beguiling mix of multicolored brickwork, terra-cotta accents and marble carvings — seems too fine for its historical function as a center for the corporate giant. But its artistry is perfectly suited to its role as the home of the Sotheby’s Summer Institute (SSI), courses run by the famed auctio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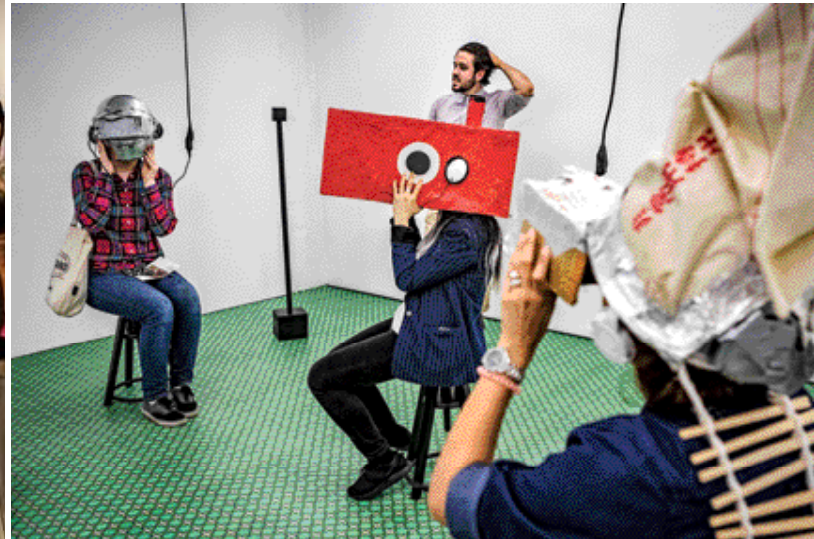
While Sotheby’s Institute of Art has been educating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since 1969, the Summer Institute was only launched in 2008. “Being in New York, we have an international audience for all of our nondegree programs,” says Susan Roth, Senior Director of Global Admissions and Recruitment. “We’ve created something for people who don’t need a full degree but who do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art industry and art world.”

One such summer program is Curating Essentials, which teaches students about the curator’s role: how to develop relationships with artists, write exhibition proposals and plan installations. Students also learn how curating is changing with the growing number of art fairs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의 여름 학교 수강생들이 소더비 경매 회사의 본사를 둘러보고 있다(왼쪽 페이지, 아래). 전시장으로 향하는 ‘큐레이팅 핵심’ 강좌 수강생들. 현장 교육을 통해 설치 미술 기획 등을 배운다(오른쪽).

Students in Sotheby’s Summer Institute (SSI) explore the famed auction house’s headquarters (opposite, below). Enrollees in the Curating Essentials program on their way to an exhibit. The course covers writing proposals, planning installations and more (right).





'뉴욕의 현대 미술' 강좌 수강생들이 그리니치빌리지에 있는 예술가 케리 샬린의 스튜디오를 찾은 모습(왼쪽). 여름 학교 수업은 갤러리와 스튜디오, 경매장 등 주로 교실 밖에서 진행된다(위, 오른쪽 페이지).

Students in the Contemporary Art in New York program visit the Greenwich Village studio of artist Kerri Scharlin (left). Much of the SSI's class time is spent in galleries, studios and auction houses around the city (above, opposite).

뉴욕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 '대학 밖에서'라는 표현이야말로 소더비 여름 학교의 운영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 준다. 대부분 강좌가 수업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교실에서 진행하거나 강의를 듣는 데 할애한다. 나머지 시간에 학생들은 뉴욕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이나 경매장, 박물관, 스튜디오 등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다.

'뉴욕의 현대 미술' 강좌를 수강 중인 학생들이 그리니치빌리지에 위치한 예술가 케리 샬린의 스튜디오에 모였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샬린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준 요소, 작품 의도와 표현 방식, 그리고 '샬린'이라는 인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예술가를 만나는 이런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끌어냅니다.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예술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하고 서로 지식을 쌓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강사 캐슬린 매든의 말이다. 그녀는 "이 분야 지식인들을 만나 '시각적 철학'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도 나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화 중심의 수업은 여름 학교의 정수라 할 수 있다. 강사들은 미술계의 역사, 철학,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런 수업 방식은 수강생들이 이 업계에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학교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 "늘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ALL THE CITY'S A STUDIO "Outside academia" is the perfect way to describe how the SSI operates. In many classes, only about a third of the time is spent in a classroom or listening to a lecture. The art world spans the whole of New York, and students spend hours in galleries, auction houses, museums and studios around the city.

In Greenwich Village, students from the Contemporary Art in New York program arrive at the studio of artist Kerri Scharlin, where they hear a full exploration of her career, what influences and motivates her and the whys and hows of her art, all from Scharlin herself. "I teach this course very conversationally," says instructor Kathleen Madden. "We meet with intelligent people to discuss what might be considered visual philosophy."

This devotion to dialogue is central to the SSI. Teachers aim to impart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philosophy and business involved in working in the art world. The goal is to help students find paths to fulfilling work in the field. "I always tell them that I want them to think of this class as a map. They get a lay of the land and decide if they want

하나의 지도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큐레이팅 핵심' 강좌의 강사 미디어 파진의 말이다.

이는 자칫 뻘한 조언처럼 들리겠지만 모든 학생이 지나야 할 기본적인 태도다. 몇 주간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공부한 뒤 수강생들은 다시 학교로, 직장으로, 현실로 돌아가게 된다. 소더비가 직업 훈련에 중점을 두는 이유다. 로스는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이 많고, 또 이들이 예술에 관심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우리 학교는 경매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이론보다는 실천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실용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료 후 박물관 전시를 기획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좀 더 흥미로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하기도 한다.

"우리는 미래의 미술 시장 전문가와 문화계 종사자를 길러 낸다"고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틴 관은 말한다. "지난 50년간 8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예술계에 큰 변화를 이끌고 있죠. 우리 졸업생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예술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글 사진 베스 루니

to explore a neighborhood more closely," explains Media Farzin, who helps teach Curating Essentials. "I want this class to be a way for them to explore their own ideas."

While this may sound like a very basic first step, it's a vital one for all students. After a few weeks, they'll head back to school, to work, to the real world. This is why Sotheby's focuses on vocational training. "We were created as an arm of the auction house. So we aren't teaching theory. This is very practical," says Roth. This approach has led graduates to curate museum exhibitions, do more exciting work in galleries they run or simply continue their studies at graduate schools.

"We're training future generations of art market professionals and cultural stewards," says Christine Kuan, the CEO of Sotheby's Institute of Art. "Over the past 50 years, we've graduated over 8,000 students, and they're transforming the art world. Our graduates go on to do important work to help preserve art and culture for future generations." Text and photographs by Beth Rooney

